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교육

군산시 청년뜰, 청년대상 대인관계·의사소통향상 교육 참여자 모집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가 오는 8월 9일 ~ 11일에 진행되는 '코로나세대(M세대) 의사소통향상 교육'의 참여자 30명을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

팬데믹 장기화 속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스트레스 주 원인으로 대인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의사소통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코로나 세대)을 위해 비즈니스 기초소양 및 상호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사회생활의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주요자 계획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청년의 심리인정과 청년활동 활성화 취·창업 지원 기관 '군산시 청년뜰'이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전북지부'와 협력해 함께 진행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컨설팅과 교육훈련, 자격인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경영지도기관이다.

교육진행은 오는 8월 9일 △오리엔테이션 비즈니스 매너/에티켓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시작으로 △고객심리의 이해, 고객 커뮤니케이션 △회의의 획 및 의전실무, 교육과정 총정리와 자격증 시험 응시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 8월 11일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SMAT MODULE A 자격증에 응시하게 되는데, 이 자격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고객(서비스 대상) 관점에서 올바른 비즈니스 매너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대의 심리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커뮤니케이션 실무자양성을 위한 자격과정이다. 3일 과정 교육에 참여하면 수료증을 발급하며, 자격시험 합격 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비 및 자격증 신청비는 전액 지원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이 인화공원 슐리메타누리길을 방문해 소통 행정을 펼쳤다

“녹색정원 도시로 도약 박차”

정현을 익산시장, 인화 슐리메타누리길 현장 행정

정현을 익산시장이 인화공원 슐리메타누리길을 방문해 소통 행정을 펼쳤다.

정 시장은 지난 27일 인화공원 슐리메타누리길 야간경관 조성 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살피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시민들과 함께 직접 산책로를 둘러본 정 시장은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정원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

난해 산책로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야간경관조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 추가로 1.3km 구간에 조명을 설치했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인화공원 슐리메타누리길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들이 야외에서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정원 도시로 도약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민간기록물 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상·최우수상 등 총 29점

익산시가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29점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익산교육의 발자취, 기록으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민간기록물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23명 등 총 29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대상에 해공 신익희 선생 정재 사진(1956년), 백범 김구 선생 이리 방문 기념사진(1946년), 조병욱 박사 이리 방문 사진(1956년) 원본이 담긴 앨범이 선정됐다. 해당 앨범은 익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진 기록으로 평가받았다.

합영항교 관련 기록물과 1940년대 금마국민학교(현 금마시장) 사진, 1965

년 해체 보수 이전의 왕궁리 유적을 알 수 있는 왕궁리 유적 소품 사진 등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은 1947년부터 1984년까지 왕궁리 동룡리 마을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정의계록(정의簿)과 1932년 익산군 최초의 '익산군지, 성리학의 기본원리를 그림을 붙여 풀이한 권공의 입학도설' 사본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구 호남병원 상판문 현판과 호남병원 옛 사진, 일제강점기에 인쇄된 '금마지', 이리안토제 화칙 및 이리안토제안 원광대학교 신문 및 이리안토제 등 다양한 기록물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88명 참여해 2천81점이 접수되었다. 첫 번째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 개최 이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기록물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기록물은 전문가 1차 심사를

거쳐 익산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평가해 최종적으로 29점이 선정됐다.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등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집된 기록물은 향운·향습 시설이 갖춰진 익산시 수장고에 보존된다. 시상식은 10월 개최되며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수집된 기록물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익산의 교육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수집돼 매우 뜻깊었다”며 “긴 세월 동안 소중하게 보존하고 공모전에 기증해주신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의 교육과 지역사회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기록이 접수된 점은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HACCP(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 인증 확인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국수, 유당면류, 즉석삼겹살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군산시는 최근 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유예기간 도래 인증 부적합 인증 취소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썹(HACCP)이란 안전한 식품 제

조·가공을 위해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다.

군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81개소 중 76개소가 147개 식품유형에 대해 해썹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을 받게 된다.

시 식품안전관계자는 “해썹(HACCP)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및 HACCP 전산기록관리 시스템 무상보급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민약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비 연안환경 정화

군산시는 28일 섬의 날 행사를 대비해 연륙도서 일원에서 연안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연안환경 정화활동은 신시도항과 신시해안교 아래 해변, 그리고 섬의 날 행사장인 선유도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 항만해양과 직원들 비롯해 바다환경지킴이, 그리고 마을주민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페스티로폼 및 페어구, 페어망 등 각종 해양쓰레기 5톤을 수거했다.

제3회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지스코와 선유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되며 국민들이 섬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고 섬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다 같이 즐기기 위한 날이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앞서 민관



합동으로 연안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한상봉 항만해양과장은 “제3회 섬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추진한 오늘 정화활동을 통해 군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군산의 섬들을 보여드리고 오신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비롯하여 우리 군산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안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 통

익산시, 직장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직장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직장인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야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퇴근길 학습한잔'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평생학습 접근성이 낮은 직장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습이 가능한 기관·단체 등 유류 시설 장소 12곳을 선정해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직장인과 소상공인 스스로가 기획한 예술, 인문, 직업과정 등 분야별로 총 12개 강좌, 103명이 참여해 운영된다. 전문 강사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습매니저가 파견돼 직장인들의 학습 요구 파악과 학습 상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갈등관리 교육 추진

군산시는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읍·면에 거주하는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했다.

갈등관리 교육은 농촌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사례들을 다루며 마을 발전의 저해요소를 해결하고 주민의 화합을 도모해 지역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쌓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은 갈등해소 기법과 효과적인 갈등 조정법 등을 강의와 토론,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 진행됐으며, 갈등의 개념과 이해, 농촌마을 갈등탐구, 귀농귀촌 갈등 사례 및 융화, 마을별 갈등사례 모의 실천(퍼실리테이션), 갈등해소를 위한 핵심 스킬 마을공동체를 위한 '나로부터 변화와 팀워크'라는 주제로 총 6강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는 읍·면지역에서 이장들과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군산=김판곤 기자